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3년 3월 조사 -

2023년 4월 5일
 주식회사데이터큐레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경기동향온라인 https://www.tdb-di.com

국내경기는 4개월 만에 개선

~ 관광·오락업이 호조, 계절수요도 겹쳐져 애프터 코로나를 향한 움직임이 가속 ~

(조사대상 2만 7,628사, 유효회답 11,428사, 회답율 41.4%,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3년 3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8포인트 증가한 43.9로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우려요소는 있으나 인과 증가에 따른 소비활동이 견인하여 상향으로 전환되었다. 향후는 원재료 가격 급등 등 하락요인은 있으나 대체로 보합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4개월 만에 전 10개 업계에서 개선되었다. 특히 『운수·창고』『소매』『서비스』 등에서 크게 개선되어 5개 업종에서 50대가 되었다. 마스크 규제 완화에 따라 소비자 마인드가 개선되고 봄방학이나 환송영회, 이사 등 계절수요도 겹친 인과가 증가하여 기업활동에 플러스로 작용하였다.
- 5개월 만에 『킨키』『췌고쿠』『큐슈』 등 전 10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는 41개 도도부현이 개선되었다. 인과 증가가 호재로 작용하여 각지에서 플러스 영향이 나타난 한편 건설수요도 폭넓은 지역에서 상승하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4개월 만에 모두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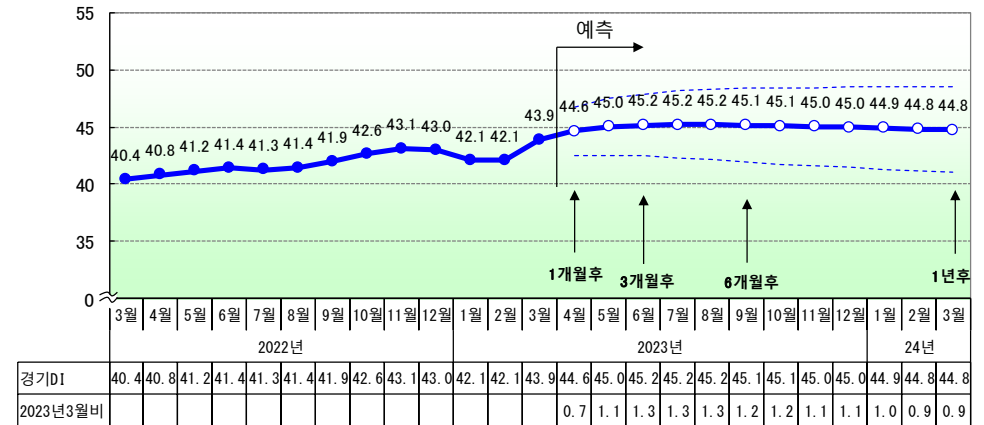
< 2023년 3월의 동향 : 상향으로 전환 >

2023년 3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8포인트 증가한 43.9로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3월의 국내경기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수 진정 및 마스크 착용률 완화에 따른 밝아진 소비자 마인드 등 애프터 코로나로의 움직임이 가속되었다. 신종 코로나가 유행이던 연도말과 달리 왕성한 여행수요 및 졸업, 환송영회에 따른 소비활동이 눈에 띄며 개인 소비 관련을 중심으로 폭넓게 체감경기는 상향하였다. 또한 졸업 및 취업 등 계절수요 증가도 상승 요인이 되었다. 한편 사업가격의 고공행진 및 인력부족·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기회손실 발생은 악재였던 한편 생활필수품 등의 계속된 급등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국내경기는 우려요소는 있으나 인과의 증가에 따른 소비활동이 견인하여 상향으로 전환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대체로 보합 경향으로 추이 >

향후 1년간 정도의 국내경기는 경제 사회 활동의 정상화를 향한 움직임이 한층 진행되는 것이 경기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이후도 연장되는 전국 여행 지원 및 인바운드, 신종 코로나의 법정 감염법 등급 조정 이행 등으로 인한 인과 증가는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폭넓은 업계에서 플러스로 작용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IT투자를 비롯한 DX 추진, 각종 이벤트의 정상 개최, 도시부 재개발 등도 호재가 될 것이다. 한편 해외경제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는 많이 불투명하고 원재료 가격 급등 및 인력 부족 등의 장기화는 우려요소이다.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코로나 관련 융자 변제, 금리동향 등도 악재가 될 것이다. 향후는 원재료 가격 급등 등 하락 요인은 있으나 대체로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전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